

권능의 현장, 신령한 공간에 가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권능의 무안단물터에 올 여름에는 해외에서 약 1천 명의 손님들이 한달에 방문했다.

참 믿음의 증거

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말씀에 기쁨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마음 다한 충성을 할 수 있다.

“체육대회, MVP 수상 비결은요~”

‘2016 만민 하계수련회’ 둘째 날에 개최된 체육대회 시 남아 MVP 수상자와 배구 경기 4연패를 달성한 지교회팀의 인터뷰.

사모한 만큼 은혜와 축복이 넘쳐

올해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해 재창조의 권능을 체험한 농아 성도들과 은혜로 더욱 충만해진 우크라이나 안톤 배구 성도 간증.

# 만민뉴스

제753호 2016년 8월 28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성경 역사 체험하는 ‘권능의 무안단물터’ 방문

### 치유와 영의 세계 체험하는 등 은혜 넘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마라의 쓴물에 한 나무를 던지니 물이 달아졌다. 2000년 3월 5일,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시공 초월한 기도를 통해 전남 무안군 해지면 무안만민교회 앞 바닷가의 짠물이 단물로 변화되었다. 이 무안단물에는 하나님 권능이 담겨 있어 이것을 마시고 바르며, 또 침수할 때 치료와 응답,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 이곳을 찾는 국내외 순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11일(목), ‘2016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한 해외 30여 개국의 해외 주의 종과 성도들 가운데 약 1천 명이 전남 무안군 소재, 무안단물터를 찾았다.

이곳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무안만민교회 앞 바닷가의 짠물이 단물로 변화한 권능의 현장으로 국내외에서 순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약 1천 명의 성도들은 나이만 장군이 요단강에 일곱 번 침수함으로 문둥병을 치료받은 것처럼, 하나님 권능으로 자신의 기도제목을 응답받기 위해 마음의 소원을 품고 무안단물에 침수하였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 황슈핑 성도(42세, 여)는 “지난 5년 동안 두통으로 고통받았고 원시로 인해 가까운 글씨가 안 보였는데, 무안단물에 침수한 뒤 두통이 사라지고 시력이 좋아졌어요.”라고 간증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무릎 통증으로 10년 동안 고통받았던 네팔 간 바하돌 라이 집사(43세, 남)는 “왼쪽 무릎에 통풍이 있었습니다. 늘 부어

있고 남모를 통증에 시달렸으며 걷는 것조차 아주 힘들었지요. 수련회 첫날 은사 집회 때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은 뒤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안단물에 침수한 후에는 부기도 완전히 빠져 무릎이 아주 편안합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가벼움입니다.”라며 기뻐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안톤 성도(41세, 남)는 혈액순환 장애를, 안젤라 성도(45세, 여)는 하지정맥류를 치료받기도 하였다

(관련 간증 4면). 이 외에도 침수를 통해 각종 통증이 사라지고 변비, 무좀, 치질 등 다양한 질병이 치료되었다는 성도들의 간증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무안단물터 동산에서는 기도받기 전의 원래 짠물과 기도로 변화된 단물을 시음하는 순서와 이성철 목사의 인도로 ‘하늘보기’를 하며 영의 세계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도 퍼시얼 라자 두라이 전도사(29세, 여)는 “주의 은혜로

태양을 중심으로 한 십자가와 다섯 꽃잎 등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제 주변에 천사들이 보여 매우 행복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류쥘타오 전도사(40세, 여)는 천사의 날개를, 싱가포르 위광은 형제(12세)는 십자가와 금가루, 은가루를 보았으며, 많은 사람이 천사들과 오색찬란한 빛을 보았다고 간증하는 등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 “20년 만에 오른팔이 머리 위로 쭈욱 올라갑니다!”

조세핀 빈누안 크라이 성도 (68세, 필리핀 다바오만민교회)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여 년간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무리한 업무로 인해 오른쪽 어깨 연골이 닳아 통증이 심했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받아 봐도 그때뿐, 이내 아프기 시작했지요. 급기야는 오른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6 만민 하계수련회’ 참석차 한국에 와서 8월 3일 만민기도원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복님 원장님의 기도를 받은 뒤 오른쪽 어깨 통증이 완화되고 팔을 위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난 8일, 수련회

첫날 교육 후 은사집회 시에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전체를 위한 환자기도로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오른팔을 자유자재로 마음껏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11일에는 권능의 무안단물터를 방문하여 무안단물에 침수했을 때 온통 하얀 빛이 가득하게 보였고, 침수 후에는 수술해야만 했던 오른쪽 가슴 종양의 크기가 아주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당회장 이재록 목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13)

# 참 믿음의 증거

예수님께서 “물고기의 입에서 나오는 돈으로 세금을 내라.” 혹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의 집으로 따라가서 만찬을 나눌 방을 요청하라.”고 명하실 때 베드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물고기 입에서 어떻게 돈이 나오니까?”, “고기가 안 잡히면 어떻게 할까요?” 또 “정말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그 시간에 맞춰서 지나갈까요?”라고 질문했다면 예수님께서 일하시기에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요? 혹여 질문하지 않아도 ‘왜 이런 이상한 일을 시키실까?’ 하면서 속으로 불편해하고 힘들어한다면 일을 시킬 수 없으셨겠지요.

당시 베드로는 아직 온전한 믿음의 차원에 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권능을 보며 말씀의 권세를 체험하니 예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었지요. 이후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진리로 변화되어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져 결국 순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7년간 고통받던 온갖 병들을 하나님께 단번에 치료받은 후,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제단의 모든 사역도 전폭적인 신뢰로 이뤄졌지요.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약속을 의심한 적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작은 병은 기도하지만, 급하고 중한 병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일이 꼬이면 하나님의 사랑도 멀게 느껴져 염려, 근심으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지요.

참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신뢰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아 더 열심히 행하지요. 따라서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어려울 때

나 헝통할 때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 2. 참 믿음의 증거는 온전한 순종

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순종의 증거가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눅 5:4) 하실 때 만약 베드로가 순종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고기잡이에 대해 잘 압니다. 밤새 고생했는데, 다시 나가도 소용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답했다면 신뢰한다는 말을 꺼낼 수 없을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신 줄을 믿고 말씀대로 이뤄지는 줄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많이 피곤하니 다음에 순종하겠습니다.” 한다면 이런 사람에게 신뢰하는 마음이나 믿음이 있다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이 참된 믿음의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할 때야 권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주 안에서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성결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시며 변화되기 위해 얼마나 순종하고 계신지요? 쉬지 않고 중심으로 부르짖어 성령으로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매주 설교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양식 삼고 계시는지요?

혹여 예수님께서 직접 “물고기를 잡아 오라.” 하시면 두말없이 순종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에도 순종하며, 오지에서 선교하라 하셔도 ‘아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매주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도 순종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더 큰 사명도 맡기실 수 있습니다.

## 3. 참 믿음의 증거는 마음 다한 충성

참 믿음이 있다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여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일꾼이라 하면서 신앙이 정체되고,

있는 곳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기가 민망하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열심히 하고, 하기 싫은 일을 맡기면 대충대충 하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것만 하고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참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는 부끄럽습니다.

이 제단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마지막 때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은 있는 곳에서 마음 다해 충성하는 것이고, 그 영광의 열매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마음 다해 충성할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열매가 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다면 어느 한 분야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섬기지만 직장이나 가정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다면 참 믿음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남편과 자녀는 믿음이 좋은데 왜 우리 가족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왜 복음화가 되지 않을까?’ 하며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족에게 신앙의 본을 보였는지,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신앙생활로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해 주었는지’ 먼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이 있다면 어디서든지 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본이 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든지 우리의 빛으로 인해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지요. 이렇게 분야 분야에서 마음을 다해 충성하면서 믿음으로 심고 섬김으로 가꿀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여 모든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마음 다한 충성으로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귀한 제단에서 큰 영광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사람의 힘이나 지식으로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믿음만 있으면 안 될 것이 없지요.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영적인 믿음, 보배와 같은 참 믿음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 1. 참 믿음의 증거는 전폭적인 신뢰

신뢰는 내 생각과 내 유익에 맞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며, 시간과 상황이 바뀔다 해서 변질되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은 전폭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새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 어부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심히 많은 고기가 잡혀서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정도였지요(눅 5:3~7).

이후로 예수님과 함께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베드로의 신뢰는 커졌고, 마침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며 깊은 영적인 고백을 하였습니다(마 16:16). 이런 신뢰가 있었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와 동행하시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http://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의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mailto: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http://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2016 만민 하계수련회’ 체육대회 MVP



“목자의 기도로 태어나  
그 은혜에 감사해  
힘차게 뛰었어요”

달리기 3관왕, 이재아 자매 (3대대 31교구, 중1선교회)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여자 100m달리기, 오래달리기, 아동·학생 계주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한 주간 아침 금식을 하시며 대신 기도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수련회에서 오래달리기는 많이 해보았지만 100m달리기는 처음이라 자신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장년 성도님들과 함께 뛰어야 해서 부담이 많이 되었지요. 하지만 교구장님과 대대교구장님을 비롯해 주변에서 “부담을 갖지 말고 잘 뛰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수련회 3주 전쯤 꿈속에서 당회장님께서 찾아 오셔서 저를 꼭 안아 주셨기에 자신감을 갖고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결혼 후 2년이 되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2002년 5월, ‘제10회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 때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았는데 곧바로 제가 잉태되어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태어난 제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체육대회에서 달리기 3관왕이 됐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려요.



마산, 광주, 동광주, 대전, 밀양, 김해, 춘천. 사는 지역도 다르고 소속된 교회도 다르며,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23세에서 61세까지 다양하지만 ‘만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된 지교회 배구팀이 올해로 4연패를 차지했다.

영남에서 호남, 호남에서 영남, 왕복 5~6시간 거리로 연습을 위해 경상도와 전라도의 중간 지점인 순천이나 하만에서 주로 만나 실내체육관에서 약 한 달간 비지땀을 흘리며 맹훈련을 했다.

선수 중에는 초·중·고 배구선수 출신 또는 운동을 좋아해 배구 클럽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있고, 현직 배구 코치(이성진 형제)도 있어 기본기가 확실한 팀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승의 주된 요인은 선수들의 주를 향한 열정이다.



“23년 선수생활이  
체육대회를 위해 준비된  
것만 같았습니다”

배드민턴·계주 2관왕, 김대성 집사 (2대대 12교구, 1-1남선교회)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는 제 마음은 남달랐습니다. 배드민턴 선수로 각종 대회에 나가 수많은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꼭 받고 싶었습니다.

체육대회 경기는 야외에서 진행되는 만큼 실내경기와는 달리 바람의 영향과 잔디의 영향이 변수가 되고, 파트너와의 호흡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경기가 어려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작정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며 불어오는 바람도 저를 위한 바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드디어 체육대회 당일 경기가 15대 15까지 가는 팽팽한 접전 끝에 지교회팀의 실수로 연속 득점을 하여 21대 15로 승리하게 되었지요. 올해 처음으로 배드민턴 종목이 추가되었는데, 감사하게도 2대대 여자선수들도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저는 계주 선수로도 준비를 하였는데, 연습하던 중 왼쪽 허벅지에 근육 파열과 같은 손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체험을 주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려나 보다 생각하며 감사하였지요. 수련회 첫날 은사집회 시 당회장님의 기도를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날 체육대회 시 남자 청장년 계주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게 바통이 전달되는 순간 언제 아팠냐는 듯이 몸이 가벼웠고 뛰는 중에 치료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지요. 두 손을 번쩍 들고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해요!” 외치며 골인 선에 들어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배구 4연패, 지교회팀

“승리의 비결은  
화평과 순종입니다”

이번 ‘2016 만민 하계수련회’ 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 이희선 목사의 기도를 받을 때 “경기 중 목자의 향기를 발하는 선수가 되라.”는 기도 내용을 선수들은 마음에 품었다.

감독 박수백 장로(57세, 경남자원(주) 대표)는 “훈련을 위해 모이면 가장 먼저 합심기도부터 했습니다. 지교회 모든 성도님에게 즐겁고 행복한 경기가 될 수 있도록, 목자의 향기를 내는 선수들이 될 수 있도록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절대 상대팀에게 불만을 품지 않고 심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니만큼 팀워크가 중요한데, 본인이 원하는 포지션이 있지만 어떤 포지션을 맡겨주더라도 선수들이 기쁘게 순종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6. 8.28~ 9.3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날마다 새롭게 ■ 마음발을 개간하자 7
- 십자가의 도 21-24 ■ 위로부터 난 지혜 9
- 창세기 강해 103-105 ■ 십계명 1-5
- 요한계시록 강해 27-34 ■ 사랑장 1
- 믿음을 책망하시니 15-20
-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 1-4
-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1-3

GCN TV설교

-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다 (이수진 목사)
-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 (이미영 목사)
- 영의 세계 54 (이희선 목사)
- 욕기 강해 4 (신동초 목사)
- 열 재앙 26 (정구영 목사)
- 사랑 (이지영 목사)
- 참된 가치, 바른 인생길 (정리라 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사해보기 22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43
- 내 마음의 찬양 33
- 창조와 과학 10 ■ English 15
- 모두 드려요 42 ■ 옛날 옛적에 7

해외성회 및 교육

- 온두라스 연합대성회 2
- 믿음으로 걸어온 길 25
- 화상 스페셜 2

GCN HD 채널 kt olleh tv 882번



##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 농아들의 귀가 열린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농아 성도들이 청력을 회복한 간증을 수없이 들어왔다. 12년 동안 매년 진행된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를 비롯, ‘2000 나고야 신유대성회’ 때에는 13명의 농아 중 7명이 듣고 말하게 되었고, ‘2015 만민 하계수련회’ 시에는 해외에서 참석한 28명의 농아 중 27명의 귀가 열렸다. 이 외에도 각종 집회와 손수건 기도(행 19:11~12) 시 농아들의 귀가 열려 듣게 되는 무수한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왔다.

최근 ‘2016 만민 하계수련회’에는 프랑스, 독일, 파로제도, 덴마크,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29명의 농아가 참석하였다. 이들은 40일 아침 금식을 하였고 매일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였다고 한다.

과연 첫날 교육 후 이어진 은사집회 시, 이재록 목

사의 환자기도를 받던 농아들의 귀에 뜨겁거나 시원한 기운, 또는 찌릿찌릿한 느낌과 함께 들리지 않던 귀가 열리고 이전보다 더 잘 들리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 결과, 작년 수련회 시 귀가 열린 리우 갈릭 형제(23세, 말레이시아)는 양쪽 귀가 더 잘 들리고 입도 열려 말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작년 수련회 때 오른쪽 귀로 소리를 듣게 된 리 임 집사(50세, 여, 말레이시아)는 이전보다 더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어 기뻐했다.

그런가 하면 가이젤 죄더 성도(47세, 여, 독일)는 기도받을 때 양쪽 귀가 뜨거워지더니 소리가 들렸고, 갑상선 수술 후유증도 치료받았다.

한스웨이해 한센 성도(31세, 남, 파로제도)는 작년 수련회 때 열린 왼쪽 귀가 더 잘 들리고 오른쪽 귀도 처음으로 소리를 듣게 되었다. 우메시그로브 성도(44

세, 남, 인도)와 파스칼 성도(48세, 남, 프랑스)도 오른쪽 귀가 열리는 체험을 하였다.

이 외에 짓데 다할(58세, 여, 덴마크), 시아폰타사(24세, 남, 태국) 성도님과 말레이시아에서 참석한 프리스안 다스 바스가라다스(28세, 남), 리우칼 폰드(23세, 남), 오이홍오이(38세, 남), 추아 수 벵(49세, 남), 푸룬 링(23세, 남), 님스지기(16세, 여), 임이(50세, 여), 림순성(21세, 여) 성도 등도 작년에 이어 올해 수련회 시에 귀가 더 많이 열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국내 성도 가운데서도 조혜진 집사(47세, 여)는 오른쪽 귀에서 보청기를 빼고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발음이 이전보다 정확해졌으며, 차영숙 집사(67세, 여)는 양쪽 귀가 열렸다. 또한 작년 수련회 때 귀가 열린 이정숙(45세, 여), 정미옥(48세, 여) 집사는 이번에 더 많은 소리를 듣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

## “만민을 만난 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요”

안톤 베구 성도 (41세, 우크라이나 하르코프 시)

저와 아내 안젤라는 TBN 러시아 방송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만민 웹사이트(www.manmin.org)를 통해 지속적으로 설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말씀대로 살아가 노력했지요. 정도를 쫓으니 사업터도 번창하여 물질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저희 가족 여덟 식구는 아침마다 기도회를 하며 매일 성경 한 장 읽고, 주요 성구 한 절을 암송합니다. 여섯 살인 막내를 제외하고는 매달 3일 금식을 하다 보니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아들 필립은 최근 미국 비자를 받기 어려운 우크라이나에서 너무나 행통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었고, 의대생인 딸 수잔나는 ‘공부 잘하는 비결’에 관한 당회장님의 설교를 들으며 학교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희 가정은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에 소망하며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여 오직 진리대로 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아내는 이번 ‘만민 하계수련회’를 1년 동안 사모함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출국 때부터 저희는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였지요.

8월 2일 우크라이나에서 출발한 저희는 3일 한국에 도착했는데, 그날 경유지인 두바이 공항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두바이로 가는 모든 항공이 결항되고, 저희가 타고 온 비행기도 다시 두바이로 돌아가지 못했지요. 만일 하루만 늦었어도 저희는 아마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016 만민 하계수련회’는 첫 시간부터 은혜와 감동이 넘쳤습니다. 전국적인 폭염에도 수련회장은 구름으로 하늘이 덮이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기사와 제 어깨와 손가락에 잠자리가 사뿐히 날아와 앉는 놀라운 경험, 당회장님의 전제 기도로 수많은 사람이 치료되는 권능의 역사들을 보며 저도 ‘성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왔습니다.

최적의 기운에서 진행된 체육대회에서는 만민의 하나 됨을, 캠프파이어 때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그리고 목자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천국 소망이 넘쳤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무안단물터를 방문하여 수많은 천사와 황금빛을 보았고, 무안단물에 침수한 후 저는 혈액순환 장애를, 아내는 하지정맥류를 치료받았지요. 할렐루야!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자책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182-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겸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종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릉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